



에세이 제목	“행복=방정식이 아닌 항등식”
--------	------------------

<작성 형식> 글꼴 : 바탕 / 글자크기 : 11 / 줄 간격 : 160 / 정렬 : 양쪽 정렬

‘밀레니엄 수학 7대 난제’란 지난 2000년 5월 미국의 클레이수학연구소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각에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은 문제들이다.¹⁾ 무수히 많은 수학자들이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푸앵카레 추측’을 해결한 그리고리 야코플레비치 페렐만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정교한 수학적 논리의 세계 앞에 굴복해야만 했다.²⁾ 수 세기 동안 인류가 정복하지 못했던 이 7대 난제보다 더 어려운 개념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미디어를 통해 수 없이 노출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것은 바로 “행복”이다.

인류의 탄생 이래 행복은 우리 인간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 관심에 비례하여 행복과 관련된 수많은 담론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쏟아져 나왔다. 행복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내려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이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 방안들을 제시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모두가 수궁할 만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여전히 서점 가판대 위에 놓여진 행복에 관한 무수한 책들을 뒤적거릴 뿐이다.

우리에게 있어 행복이 이렇듯 난제인 이유는 모두가 행복의 구조를 “항등식”이 아닌 “방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등식이란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방정식과는 달리, 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 식을 의미한다. 식에 어떠한 숫자를 대입하든 간에 결국 모두 답으로 귀결된다. 행복이 항등식이라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행복으로 도출된다. 어느 누구도 행복과 관련된 서적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자기만의 행복에 대한 해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행복이란 문제를 방정식으로 상정하고, 머리를 싸매며 그에 대한 문제를 풀어 나간다. 여기서 문제점은 과거보다 더 많은 변수들이 지금의 방정식을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식량이 부족했을 과거 시기에는 의식주 중 食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지금은 돈, 명예, 학력, 좋은 배우자 등 다양한 변수들을 만족해야만 한다. 7대 난제를 푸는 데 혈안이 된 수학자들처럼, 모두들 단 하나의 행복의 답에 매몰되어 오늘도 불행한 하루를 살아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에서 언급했던 방정식의 변수들이 모델 내부에서 비롯되는 내생 변수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는 외생변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즉, 행복이 나의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들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이다. 행복을 느끼는 주체는 분명 나이지만, 나의 행복이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타인의식 증후군”의 양상이 세계

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08741&cid=60335&categoryId=60335>
 2)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5011653301>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체면을 중시하는 허례허식이 넘쳐나고, 대학을 선택할 때 ~~자신의 비전보다~~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일류대학인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심지어 자신의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보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기업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타인의 시선에 매몰되어 외생변수만을 계산하다 보니 행복을 느끼는 주체는 자연스럽게 소외되었다.

결국, 방정식으로 행복이라는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밀레니엄 수학 7대 난제’를 풀기 위해서 무모하게 시도하는 것과 유사하다. 물론, 그리고리 야코플레비치 페렐만처럼 방정식으로 행복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페렐만은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던 수 천 명의 수학자 중 단 한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대다수는 행복의 방정식을 풀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이라는 비극적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외생변수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을 방정식이 아닌 항등식으로 접근할 때 오히려 행복의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항등식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모든 사람의 방법이 정답의 풀이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단편 하나하나가 정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외부의 시선에 매몰되어 외생변수에 집중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방정식의 답을 찾기 위해 외부의 수많은 눈동자에 맞춰왔던 시선을 온전히 내면의 나에게 집중시킬 때 우리는 행복의 답을 찾는 행운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디 모두가 항등식의 세계 속에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행복의 답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